사 설

벚꽃 대책, 이해관계자 먼저 만나야

'경희랜드'라 불릴만큼 우리학교는 서울의 벚꽃명소로 잘 알려져 있다. 자연경관과 잘 어우러지는 건축물을 볼 수 있기에 아름다운 캠퍼스 순위를 논하면 양 캠퍼스가 빠지지 않고 등장하기도 한다. 때문에 벚꽃과 목련이 만개하는 4월이 되면 학생뿐만 아니라 동네주민, 나들이에 나선 가족단위 관광객, 데이트를 즐기는 연인들로 학교는 북적인다.

하지만 외부 상춘객으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교내 구성원 몫이다. 작년 국제캠퍼스는 봄꽃을 즐기려는 상춘객으로 몸살을 앓았다. 예상보다 이른 개화로 인해 대비 시기를 놓친 탓이다. 올해도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인다. 벚꽃이 이미 개화한 시점에서 총무관리처는 적절한 대책을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다. 캠퍼스 내에 작년과 비슷한 혼란이 빚어질까 우려가 되는 지점이다.

출입이 통제된 건물에 외부인이 들어오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외부인의 건물 무단 출입으로 피해를 보는 주체는 일차적으로 학생들이다. 벚꽃 시기와 시험기간이 겹친다는 것과 더불어 이번 학기가 대면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바라봤을 때, 주말에도 많은 학생들이 교내에 상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외부인의 소음으로 인한 학생들의 불편함은 물론이고, 신원이 불분명한 낯선 이들을 마주쳐야 하는 점은 교내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조성될 여지를 남긴다.

다량의 교내 쓰레기가 발생하는 것 또한 문제다. 실제로 매년 상춘객이 몰리는 시기에 교내 쓰레기통은 쓰레기 양을 감당해내지 못한다. 넘치는 쓰레기를 처리해야 하는 건 청소노동자의 몫이다. 정작 캠퍼스를 누려야 할 주체들은 외부인 출입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다.

더욱 우려가 되는 것은 피해가 학교 밖 일반인에게도 이어진다는 것이다. 교내외 도로가 마비되면 광역버스 이용객 모두가 불편을 겪어야 한다. 작년 국제캠 교내 도로가 마비되는 탓에 사색의 광장에서 출발하는 광역버스의 배차간격도 무너졌다. 캠퍼스 밖으로 나가기까지만 두 시간이 걸린 것이다. 캠퍼스 내의 미흡한 대응이 교내외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의 피해로 이어진 것이다. 서울캠퍼스에는 경희의료원이 있어, 차량 정체 현상이 일어날 경우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주말 기간만이라도 외부 차량을 통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실행이 어려울 뿐 아니라 과도하다는 여론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적절한 차량 수만큼만 들여보내서 교내외 교통 혼란을 방지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대응일 것이다.

벚꽃으로 인한 문제는 매년 발생하는 고질적인 문제이다. 올해도 적절한 방안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이라 지난해와 같은 혼란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아름다운 캠퍼스를 개방함으로써 얻게 되는 무형의 가치 역시 무시할 수 없지만 그것이 교내 구성원들의 피해와 불편을 전제로 해야 한다면 마냥 환영할 수만은 없다.

대학의 대책 마련은 교내외의 여러 이해관계자들을 만나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재학생, 청소노동자, 광역버스 운전기사, 지역 교통담당 공무원 등과의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체계적인 대응책이 마련돼야 한다. 캠퍼스 내 혼란과 함께 더 큰 혼란이 학교 밖까지 이어지는 사태가 다시금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대학의 발 빠른 대응을 기대한다.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 배리어프리

더 나은 내일

석예진 기자
stpk02@khu.ac.kr

배리어프리(barrier-free)의 사전적 정의는 '고령자나 장애인과 같이 사회적 약자들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물리적이며 제도적인 장벽을 허물자는 운동'이며, 문자 그대로 직역하면 '장애물이 없는'이라는 뜻이다. 어떤 공간이 '배리어프리화됐다'는 것은 곧 해당 공간이 장애물이 없는 상태로 변화했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완전한 배리어프리화란 무엇이고 실현 가능한 것일까.

배리어프리를 위한 노력은 세부 방안에서부터 필요성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장벽을 만나왔다. 비단 '그 정도 불편함이야 감수할 만도 하지 않느냐'는 식의 무책임한 언사 때문만은 아니다. 누구에게나 어떤 상황에서나 장애물 없는 환경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구심. 그 앞에서 자신의 공익성을 입증해야 하는 것은 배리어프리만의 또 다른 과제였다.

우리학교는 지난 '2020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 실태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 서울캠퍼스의 경우 2014년 이후 두 차례 연속 한 등급 하향된 결과였다. 시간이 흐른 지금, 휠체어 통행자의 유일한 출입로를 가로막았던 모래주머니는 배수로로 교체됐으며 흡연구역 경사로 앞 커다란 홈은 메워졌다. 호텔관광대학 본관의 무거운 여닫이문 역시 자동문으로 바뀌었다. 안주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변화다.

물론 가파른 언덕, 홈이 패인 보도, 부족한 점자유도블록까지 학교를 둘러싼 산은 여전히 거대하다. 완전한 배리어프리는 실현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그럼에도 배리어프리를 향한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 세밀한 관심과 끝없는 고민이 교차할 때 일상이 변화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다. 완전하지는 않아도 '더 나은' 배리어프리를 위해 또다시 한 걸음을 내디딜 때다.

만평 더 나은 배리어프리를 위해

경희대학교
교시 문화세계의 창조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
발행인 한균태 | 편집인 남윤재 | 편집장 이동건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서천동) Tel 031-201-3230~2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khunews
이메일 khunews@khu.ac.kr
제작 청솔디자인 | 인쇄 옴니피앤디

세시봉

피닉스세대

이지수 기자
ssu1404@khu.ac.kr

'피닉스'는 이집트 신화에 나오는 새로, 500~600년마다 한 번 스스로 향나무를 쌓아 불을 피워 타 죽고 그 재 속에서 다시 살아난다. 이러한 이유에서 기후변화와 같은 잿더미 속에서 다시 일어나고 살아가려 하는 사람들을 모두 '피닉스세대'라고 부르고 싶다.

스웨덴의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 캘리포니아 산불 이후 유엔 앞에서 등교거부 시위를 벌였던 알렉산드리아 빌라세뇨리, '미래를 위한 금요일' 등교거부 시위를 한 세계 10대 소녀들, 단식투쟁을 한 우간다 환경운동가 바네사 니카테, '2040 대안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제안한 한국 청년들. 바로 이들을 '피닉스세대'의 시조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유엔이 발표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제6차 보고서에 따르면, 2040년 이전까지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막으려는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1.5도 온난화 상황에서는 10만 5000개의 육지 생물종 가운데 곤충의 6%, 식물의 8%, 척추동물의 4%가 서식 공간의 절반을 잃는다. 그럼에도 각국이 1.5도를 사수하려는 이유는 인류가 지구온난화로 인한 피해와 손실을 그나마 감당할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지구적 생태위기'로 우리는 대전환의 기로에 서 있다. '지구 환경위기'가 아닌 '지구적 생태위기'라고 언급한 것은 자연은 환경뿐 아니라 우리 자체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이 재난으로부터 인간은 결코 자유롭지 않다.

미래학자 짐 데이토는 "코로나19 이후로 우리의 예측은 반드시 틀린다"라고 말한다. 어느 순간 균형이 깨지면서 예기치 못한 일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시점인 '티핑포인트'가 언제인지, 혹은 이미 지났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렇기에 다양한 시나리오들을 가정하고 전망해 집단적 미래 대응성을 높이는 길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앞서 '피닉스세대'라고 명명한 이들 역시 단지 불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안을 제시하며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들을 보여왔다. 우리 모두 '피닉스세대'일 수는 없을까.